

News

파월 “물가 급등 인정…하지만 조기 긴축은 실수 될 것”

한국경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급등세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던 중전 견해를 바꿈
하지만 “(긴축에 나설 수 있는) Fed의 정책 전환을 위한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안심

한은,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기준금리 '동결' 유력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 5월에 이어 아홉 번째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큰 상황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42조원 '훌쩍'… "사상 최대"

머니S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조304억원으로 전월 보다 6조원 이상 증가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5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원 증가

케이뱅크, 1조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5월 말 결의한 1조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 이에 따라 자본금은 2조1500억원대로 증가
주금 납입 완료로 주요 지분율은 변동이 있지만 대주주는 여전히 비씨카드(약 34%)

코로나에 쑥쑥 크는 보험사 비대면 CM채널

서울경제

손보하 1분기 원수보험료 23% 증가, 생보사도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디지털 손보사인 카카오손해보험사 출범 이후 CM 채널 경쟁 치열해 질 듯

4만대, 전기차시장의 유혹… 특약상품 쏟아내는 보험사

MoneyS

현재 전기차 전용상품 판매하는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2개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캐롯손보 등 3개사는 특약 형태로 판매 중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24조… 잔액 7년여만에 최저

뉴시스

발행액 점차 회복세지만 상환액 밀돌아 잔액 감소
ELS 발행액 전년말보다 32% 감소… 퇴직연금 영향

상반기 ABS발행 35.4조 18.8% 감소

연합뉴스

금감원 올해 상반기 ABS 등록발행금액이 35.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했다고 밝힘
증권사는 저신용 기업 회사채를 기초로한 P-CBO 발행이 소폭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